

과목명: 대학글쓰기

학과명: Endicott 자율융합학부

이름: 박지민

학번: 202210197

평: 대학 교양 글쓰기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소를 골고루 충족하는 매우 훌륭한 글
임. 우수에세이 선발 진출자로 선발.

제목 : 약리적 부작용이 없는 ‘기분 좋게 해주는 약’이 처방전 없이 판매되어 일반
적으로 활용되는 일에 찬성하는가? 아니면 반대하는가?

1. 서론

당신은 “플루옥세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플루옥세틴은 미국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가 개발하여, 프로작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계열의 항우울제이다. 플루옥세틴은 우울증, 강박장애, 폭식증, 공황장애, 월경 전 불쾌장애과 같은 기분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 치료에 널리 사용된다고 한다. 플루옥세틴은 상당히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고 용량 조정 후에도 한정 상태에 느리게 도달 하므로 임상에서 이를 고려한 약물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긴 반감기 때문에 금단증상이 거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만약 당신이 기분이 안 좋거나 우울한 상황에서, 현재 항우울제나 마약이 가지고 있는 약리적 부작용이 없다는 가정하에 당신에게 누군가 기분이 좋아지게 해주는 약을 건넨다면 당신은 그것을 거절할 이유가 있는가?

필자의 대답은 기분 좋게 해주는 약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기분이란 무엇인가? ‘기분’은 상대적으로 길게 지속되는 감정의 상태를 말하며 이 기분은 인간의 모든 일상생활에 연관되고, 모든 인간관계에 연관되며, 심지어는 생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2019년 11월 20일, 한 6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제주시에서 관광객을 들이받아 살해하려고 하였다.¹⁾ 2020년 9월 16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44세의 회사원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던 중 이직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자 화가나 한 건물 4층 여자 화장실에서 19세의 여학생의 머리를 5차례 내리쳤다.²⁾ 2021년 11월 6일, 한 연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여자친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살해했다.³⁾ 물론 이

1) 박성우, “기분 나빠서” 일면식 없는 행인 살해하려 한 60대 실형, 제주의소리, 2020년 02월 14일, <http://www.jeju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11929>

2) 김채현, “기분 나빠”...10대 여성 벽돌로 내리친 男, 47세에 출소합니다, 서울신문, 2021년 02월 03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09500021>

3) 박성미, “기분 나빠서...” 흥기 던져 남친 살해한 20대 공무원 징역 4년, 부산일보, 2022년 4월 16일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41617274827347>

러한 사례들은 흔치 않은 사례들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가해자들이 사이코패스, 사회부적응자라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가해자들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한 순간에 한 사람을 살인하였고,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사이에 그저 그 가해자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살인당하였다. 이처럼 기분이 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한가지이고 우울증 환자와 자살율이 증가하는 현재 시대에 기분 좋아지게 하는 약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누군가는 기분 좋게 해주는 약이 항우울제로 대체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약이 마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기분 좋게 해주는 약’은 항우울제와 마약과 구분되는 약으로 단정지어 이야기하려고 한다.

2. 본론

2.1. 기분 좋아지게 하는 약의 핵심이 될, 세로토닌

본격적으로 기분 좋아지게 하는 약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 우리의 기분을 좌지우지 하는 물질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항우울증제를 복용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인간의 뇌에서 기분을 결정짓는 물질이다. 세로토닌은 모노아민 신경전달 물질의 하나이며, 생화학적으로 필수아미노산중 하나인 트립토판에서 유도되는 이 물질은 주로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위장관, 혈소관, 중추신경계에서 볼 수 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포함한 광범위한 감정을 느끼는 데에 기여한다고 보고되고 있는 복잡한 신경전달물질이다. 4) 세로토닌은 두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도 불리우는데, 세로토닌 신경은 뇌줄기 가운데 솔기핵이라는 곳에 위치하며 그 수는 수만 개 정도이다. 이는 뇌 전체 신경세포에 비해 아주 적은 수이지만 세로토닌은 뇌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하나의 세로토닌이 수많은 신경을 상대로 하는 모습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지휘봉을 휘두르며 곡 전체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과 비슷할 것으로 비유할 수 있는 세로토닌 시스템을 갖는다. 세로토닌은 뇌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때문에 개인의 의식수준이나 건강상태 등에 영향을 미친다. 5) 그러므로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적어져서 세로토닌 기능이 저하되면 우울장애, 불안장애, 성격장애 등의 여러 가지 정서, 행동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처럼 세로토닌은 뇌전체에 관여하고,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데 기여하여 이를 통해 사람의 기분을 좌지우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기분 좋아지게 하는 약’의 핵심은 부작용이 없을 정도로 세로토닌 분비량을 증가시켜 사람의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며, 그로 인해 사람들의 건강상태 또한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야한다고 주장한다.

4) Young SN (2007). “How to increase serotonin in the human brain without drugs”. 《Rev. Psychiatry. Neurosci.》 32 (6): 394~99.

5) “세로토닌”,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84%B8%EB%A1%9C%ED%86%A0%EB%8B%8C#cite_note-6

2.2. 기분 좋아지게 하는 약의 대체자는 없다

서론에서 언급한 “플루옥세틴”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계열의 항우울제이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저해제라고도 불리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연접이전세포로 재흡수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세포외 수준의 신경전달물질 세로토닌을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연접이후 수용기와 결합할 수 있는 세로토닌의 수준이 증가하게 된다. 이 말인 즉슨, 선택적 세로토닌 억제제 계열의 항우울증제로 세로토닌의 조절 및 증가가 가능하고, 이러한 조절 및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혹은 기분 좋아지게 하는 약이 개발되지 않더라도 항우울제로 대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항우울제나 마약 등의 대체제로 기분 좋아지게 하는 약이 대체될 수 없는 이유들이 있다. 항우울제가 기분 좋아지게 하는 약 대신 대체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자살충동 및 자살사고의 증가라는 부작용이 항우울제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울증의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항우울증제가 오히려 자살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꾸준히 많은 논란이 있었다. 미국 식품의약안전청은 2004년 항우울제를 처방 받는 2,200명의 소아 청소년을 평가한 결과 4%에서 자살사고 또는 실제 자살시도를 포함하는 행동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조군의 2배의 달한다고 경고하였다. Valuk 등은 미국 의료보험 수급 대상자 4천7백만명의 의료보험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항우울제 투여 받는 10,456명과 대조군 41,815명에서 자살시도의 위험을 비교하였는데, 항우울제가 자살시도 위험을 1.74배 높이는 것을 나타냈지만, 우울증의 심각도나 공존질환, 약물 사용 등의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항우울제 사용으로 인한 자살시도의 위험도는 0.62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항우울제의 사용 시작 시에 자살시도의 위험이 3.5배 증가하고 용량을 증가하거나 낮추는 경우에도 각각 2.5배와 2배 정도 자살시도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⁶⁾ 항우울제는 세로토닌의 조절을 가능하게 하고 꾸준히 복용시에 우울감, 초조, 불안 등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도파민을 방출하여 자신감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자살충동 및 자살사고의 증가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우울제가 기분 좋아지게 하는 약의 대체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기분 좋아지게 하는 약이 자살충동 및 자살사고를 제어하면서 세로토닌의 조절을 가능하게 하고 도파민을 증가시킨다면 일반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울장애 처럼 기분과 관련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기분 좋아지게 하는 약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몇몇의 사람들은 기분 좋아지게 하는 약이 마약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코카인 및 대마초 등의 마약이 불법이라 마약에 대해 그저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류들에서도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의 재흡수를 억제하고 작용하는 역할을 하여 뇌

6) 우울증과 자살, 삼성서울병원 우울증센터, http://www.samsunghospital.com/dept/medical/health/Sub02View.do?content_id=1661&cPage=1&DP_CODE=DEP&MENU_ID=004025&ds_code=D0001673&main_content_id=406

속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농도가 높아지게 하여 몸의 각성도를 높이고 행복감을 느끼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물론 필자는 마약합법화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마약도 사람의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고, 마약에는 사람에게 필요할만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마약에 사람들이 탐닉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약은 마약 외에서 그 어떤 수단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효과, 각성효과, 그리고 환각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대는 늘 경쟁과 노동을 강요하고 반복된 일상들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무료함을 갖고 행복감을 잃게 된다. 가족 배경이 별 볼일 없거나 부모가 실업자인 청소년들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갉아먹을 것이다. 일시적인 행복이나 스트레스 해소는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되었고, 화학 성분의 진통제나 마약은 잠시나마 쾌락과 행복을 준다. 하지만 마약이 기분 좋아지게 하는 약의 대체자가 될 수 없고 꾸준히 마약이 불법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마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독성이다. 가장 대중적인 코카인으로 살펴보면, 코카인은 뇌의 보상 경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중독성이 있다.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코카인을 사용하면 의존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코카인을 사용하면 뇌졸중, 심근경색, 폐질환, 패혈증, 심장마비의 위험이 높아진다.⁷⁾ 기분 좋아지게 하는 약은 마약처럼 일상속에서 무료함을 갖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진정효과와 각성효과를 주어야 한다. 하지만 마약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마약을 대체할 수 있는 약리적 부작용이 없는 기분 좋아지게 하는 약이 허용되어 판매되어야 한다.

2.3 더 나은 사람사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길

항우울증제와 마약 모두 기분 좋아지게 하는 약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분 좋아지게 하는 약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고, 곧 항우울증제도 마약도 아닌 기분 좋아지게 하는 약이 출시될 것이다. 그렇다면 기분 좋아지게 하는 약이 출시되어 판매되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에는 무엇인가? 서론에서 말했듯이, ‘기분’은 상대적으로 길게 지속되는 감정의 상태를 말하며 인간의 모든 일상생활에 연관되고, 모든 인간관계에 연관되며, 심지어는 생사를 결정한다. 생사를 결정한다는 것이 기분 좋아지게 하는 약이 출시되어 판매에 허용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이다. 본론에서 필자가 항우울제와 마약에 대해 언급한 첫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항우울제와 마약 복용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5년(2017년~2021년)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2021년 우울증 환자수가 과거에 비해 35%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환자수는 2017년 69만 1164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93만 3481명으로 35.1%(연평균 7.8%)증가했고, 불안장애 환자수는 2017년 65만 3694명 대비 2021년에 86만 5108명으로 32.3%(연평균 7.3%) 늘어났다.⁸⁾ 통계를 보면 확실히 알 수

7) Pomara C, Cassano T, D'Errico S, Bello S, Romano AD, Riezzo I, Serviddio G (2012). "Data available on the extent of cocaine use and dependence: biochemistry, pharmacologic effects and global burden of disease of cocaine abusers". 《Current Medicinal Chemistry》

있듯이, 한국에서 우울장애와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있고, 이 우울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살시도와 자살충동이다. 만약 기분 좋아지게 하는 약이 약리적 부작용이 없는 가정하여 출시되어 판매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살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울 또는 우울감은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활기가 없다는 점에서 기분이 언짢은 느낌 또는 반성과 공상이 따르는 슬픈 감정을 말한다.⁹⁾ 이처럼 우울감은 기분과 매우 연결되어 있으며 기분 좋아지게 하는 약이 허용되어 판매된다면 사람들의 기분을 조절해 우울감을 낮추고 우울장애 환자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는 우울장애와 연관되어 있는 자살율 감소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우울장애와 자살사고를 겪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나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 그 날 하루가 달라진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날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모든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기분이 좋은 날엔 상대방이 나에게 실수를 하더라도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하루의 모든 것들이 밝고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인간은 자신이 자신의 기분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분은 개인의 감정조절 뿐만이 아닌 환경과 경험의 산물이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안에서 나의 기분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면 일의 능률이 더욱 오를 것이고, 긴장감의 조절도 가능하다면 어떠한 일의 성과도 오르게 될 것이다. 여자라면, 월경전증후군을 겪어 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월경전증후군은 월경 4~10일 전엔 황체기의 마지막 주에 시작되는 여러 정신적, 신체적 증상을 일컬으며, 피로감, 집중력 저하, 어지러움, 짜증스러움 등의 여러 증상을 경험하게 되며 가임기 여성 75%가 한 번씩은 월경전증후군을 경험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흔하다. 월경전증후군같은 경우, 성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증후군이므로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상생활에 있어 기분과 연관되는 큰 문제이다. 하지만 기분 좋아지게 하는 약을 복용하여 그 기분을 조절할 수 있다면 월경전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기분 좋아지게 하는 약이 허용되어 판매된다면 일상생활에서의 사람들에게에도 도움이 되고, 나아가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3. 결론

2021년 5월 뉴스에 따르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막연한 호기심 탓에 마약류에 손대는 10대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검거된 대다수 청소년들은 처방전을 통해 합법적으로 마약인 펜타닐을 입수하고, 펜타닐 패치를 투여해 경찰수사를 받았다.¹⁰⁾ 마음의 감기라는 우울증은 한국인 100명 중 5명이 평생 한 번 걸릴 수 있는

8) 조준경, 심평원 “최근 5년간 우울증환자 35%이상 증가해”, 의사신문, 2022년 6월 24일,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270>

9) “우울”,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우울>

병이다. 마약, 항우울제 모두 사람의 기분을 좋게하기 위해, 안 좋은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생긴 약물들이며, 한국에서나 전 세계 여러나라에서 이 약물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약물들 모두 복용시 부작용이 존재하며,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한 순간을 위해 여러 부작용들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기분 좋아지게 하는 약이 허용되어 판매된다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싶지만 자신감이 부족한 이들에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필자는 약리적 부작용이 없는 기분 좋아지게 하는 약이 처방전 없이 판매되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찬성한다.

참고 문헌

Young SN (2007). "[How to increase serotonin in the human brain without drugs](#)". 《Rev. Psychiatr. Neurosci.》 32 (6): 394~99.

Pomara C, Cassano T, D'Errico S, Bello S, Romano AD, Riezzo I, Serviddio G (2012). "Data available on the extent of cocaine use and dependence: biochemistry, pharmacologic effects and global burden of disease of cocaine abusers". 《Current Medicinal Chemistry》

김채현, "기분 나빠"...10대 여성 벽돌로 내리친 男, 47세에 출소합니다, 서울신문, 2021년 02월 03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09500021>

박성미, "기분 나빠서..." 흥기 던져 남친 살해한 20대 공무원 징역 4년, 부산일보, 2022년 4월 16일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41617274827347>

박성우, "기분 나빠서" 일면식 없는 행인 살해하려 한 60대 실형, 제주소리, 2020년 02월 14일,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11929>

"세로토닌",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84%B8%EB%A1%9C%ED%86%A0%EB%8B%8C#cite_note-6

"우울",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우울>

"우울증과 자살", 삼성서울병원 우울증센터, http://www.samsunghospital.com/dept/medical/healthSub02View.do?content_id=1661&cPage=1&DP_CODE=DEP&MENU_ID=004025&ds_code=D0001673&main_content_id=406

조준경, 심평원 "최근 5년간 우울증환자 35%이상 증가해", 의사신문, 2022년 6월 24일,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270>

황윤서, '기분좋아지는약', '수입도짤짤' 마약에 빠진 청소년들, 에듀인뉴스, 2021년 5월 1

10) 황윤서, '기분좋아지는약', '수입도짤짤' 마약에 빠진 청소년들, 에듀인뉴스, 2021년 5월 1일,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416>

일,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416>